



조 한 경  
신우음향(주) 영업부 주임

<조한경 씨 프로필>

생년월일 : 62. 10. 8

출 생 지 : 경기도 가평

현 주 소 : 동대문구 전농3동

키, 몸무게 : 165cm, 60kg

별 명 : 제비(?)

취 미 : 등산

가족사항 : 5남 1녀중 3남

자타가 공인하는 매력 : happy man

하루중 가장 힘든 시간은 : 식곤증 올 때

하루용돈 : 7,000원

주 량 : 소주 1병

어릴때의 꿈 : 화가

결혼의 정의 : 음과 양의 조화

가장 외롭다고 느껴질 때 : 혼자 입을 실감할 때

요즈음의 최대고민 : 하고 있는 어학공부, 대인관계

올해의 목표 : 해외여행 (선진유수기업을 돌아보고 싶다)

새로운것에 도전하고  
프로의 근성으로 달린다

선진국의 국내시장 개방압력은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끊임 없이 도전하고 선진대열에 우뚝 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 25시간으로 뛰는 수출역군을 만나 보았다.

신우음향(주) 영업부 조한경 주임이 본 기자가 만난 바로 그 주인공이다. '78년에 설립하여, Headphone, Earphone, Microphone 등의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신우음향에서 조한경 주임은 자신의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베테랑으로 꼽고 있다. 작년 매출액이 1,350만불, 올해 매출액 1,800만불 목표에서 '조한경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영업부에서 제가 맡은 업무영역은 수출입관리, 생산관리, 자재수급, 일간 월간 생산관리입니다"라며 이것은 "바이어 상담에서 주문량 등의 영업성과를 가지고 행해지는 업무이고 은행에서 L/C를 갖고 가서 Nego를 내는일까지 실력인으로 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평상시 업무에 대한 신조가 "도전의식을 갖고 개척하는 정신으로 일을 수행한다"는 신념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그는 존경하는 인물로 발명가 에디슨을 소개해주는 것을 보아 그의 삶의 매력은 도전하는 것에 두고 오늘의 노력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기꺼이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

신감에 찬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조한경씨는 "함께 속해 있는 영업부 직원들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밝은 웃음으로 동료들과 조화있게 잘 화합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각자의 환경, 배경보다는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자기실력을 발휘해 최고의 부서로 소문이 나있다"며 자랑한다. 또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하나됨을 위해서 협동을 이루어 나아가는 영업부"라며 간략히 소개해주었다.

또한 주위동료들이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성실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그는 영업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업무상의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여기서 '90년도 무역의 날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을 알수 있었다.

하루일과 시작이 8시 30분이 고 부원들과 3분 스피치를 가진 다음 하루의 업무계획, 생산계획을 차질없이 살핀 후 본격적인 무역업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오후에는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서류정리를 하다보면 책상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쁜 일과 중에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면 휴무를 이용해 단독 산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생생활중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산보하며 명상하는 산행시간이라고 한다.

"회사내에서도 전에는 산악회, 사진반 등이 있었지만 각자의 시간이 맞지 않아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많았다"며 이러한 동우회를 활성화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 볼 생각이라고 한다. 모두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 그는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이러한 동우회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으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일과를 열심히 꾸리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게 되는데 조한경씨는 평소 관심이 있는 외국어 공부에도 열심이어서 시간이라는 굴레에 무의식적으로 휩싸이어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상이지만 시간을 소유하고 주도해 나아가는 자기 관리에 충실을 기하는 사람임을 알게 해 주었다.

"앞으로 국내 제조업체 환경이 펴 밝지는 않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조업체를 설립해 운영해 보고 싶은 것이 소망이다"며 살면서 귀뜸해 준다. 늘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정제되어 있지 않는 자아를 위해 살아 숨쉬는 시간을 소유한 조한경 주임은 '90년대에 뿌렸던 씨앗들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